

A-8. 실험적 치은염 모델에서 Dextranase 함유 구강 세정제의 양치효과

손은주*, 김영준, 정현주
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주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치태의 완전한 제거가 치솔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치태 기능을 가진 세정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 이 연구는 3주동안 정상적인 치솔질에 의한 치태 제거 방법을 중단한 실험적 치은염 모델에서 구강 세정제(실험1군 : Dextranase 함유 세정제 사용군, 실험2군 : Chlorhexidine 사용군, 대조군 : Buffer 사용군)만을 사용시 어느 정도의 치태 축적 및 치은 염증 억제 효과, 치면 착색을 포함한 부작용을 보이는지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.

치태 축적도에서 치태의 두께를 측정하는 Silness & Loe의 치태 지수 및 치태 심도 지수는 Dextranase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가장 적게 수치가 증가하였고, 치태 축적의 면적을 평가하는 Quigley-Hein 치태 지수 및 치태 심도 지수는 3주후에 Chlorhexidine군이 Dextranase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. 치은염 지수 및 치은염 심도 지수는 Dextranase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가장 적게 증가하였다. 각 기간 별로는 세 군 모두 3주후에 구치부가 전치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. 치면 착색도는 3주후에 Chlorhexidine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, 구강내 부작용에 대해서는 Chlorhexidine군에서 대조군과 Dextranase군에 비해 혀의 침착물, 미각 이상 및 상피 탈락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.

이상의 결과에서 Dextranase 양치에 의한 치태 축적 및 치은 염증 억제 효과가 가장 큼을 나타내었으며, Chlorhexidine 양치에 비해 치면 착색을 포함한 구강 점막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 임상적으로 사용시 치주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.